

## 엠에스오토텍, '프로센스' 손잡고 자율주행차 시장 선도 '시동'

- ▶ 프로센스, 자율주행차 운행관련 면허 취득... 하반기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실시 예정
- ▶ 자율주행 기반 기술, 엠에스오토텍 물류자동화 솔루션에 선적용 후 영역 확대 계획

**<2018-05-30>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 (주)엠에스오토텍(123040)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업체 (주)프로센스와 손잡고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한다.**

2016년 설립된 프로센스는 엠에스오토텍이 지분 및 전환사채(CB) 투자를 해온 자율주행차용 센서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벤처기업이다. 특히 카메라 기반 딥러닝 인식에 초점을 맞춰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다. 엠에스오토텍, 세종공업, 세양 등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성을 내다본 현대자동차 협력사들이 공동 육성하고 있다.

엠에스오토텍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반 기술은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프로센스를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센스는 자동긴급제동(AEB), 크루즈컨트롤(ACC), 차선유지보조(LKAS) 등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운행관련 면허를 취득해 하반기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프로센스의 자율주행 기반 기술은 물류자동화 분야로도 폭넓게 활용될 방침이다. 현재 엠에스오토텍의 공장물류자동화 솔루션에 먼저 적용되고 있다. 기존 지게차를 자율지게차로 개조하고, 공장 내 IT 시스템과 연동시켜 물류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엠에스오토텍의 차체부품자동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기술 적용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엠에스오토텍 이태규 대표이사는 “다가올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특화 기업에 투자해왔다”며 “현재 ADAS 기능들이 신차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부분자율주행차 양산이 가능해지는 추세로,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개발, ADAS 적용 확대 등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100만 대 시대가 열렸으며,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세계 자율차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6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차체 경량화의 핵심인 핫스탬핑 공법을 기반으로 미국 메이저 전기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프로센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도 확보하게 된 엠에스오토텍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자료문의 : (주)엠에스오토텍 안병호 차장 (054-770-1960)

(주)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